

“결사 대중들 신심·원력, 한국불교 변화시키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 인터뷰

위례천막결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보신문은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과 인터뷰를 갖고 이번 결사가 갖는 의미를 살펴봤다. 인터뷰는 10월22일 진제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부산 해운정사에서 이재형 법보신문 편집국장이 진행했다. 편집자

△9명 스님들이 동안거 기간 동안 한국 불교증흥을 발원하며 위례천막결사를 진행하기로 해서 종단 안팎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겨울에 집도 없는 허허벌판에 천막선원을 짓고, 정진을 하는 것은 그동안 제방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9명 스님들이 한국불교를 증흥시키기 위해 정진하겠다는 원력을 낸 것은 그 자체로 장하고 장한 일입니다.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원력입니다. 원력이 모이면 아무리 어려운 일들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 심인법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도 확고한 신심과 원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확고한 신심과 원력 앞에서는 모든 속된 것들이 다 녹아들고, 어떤 장애도 사라지게 됩니다. 9명 스님들의 그 원력이 한국불교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화두를 참구하다보면 난관을 극복하고 분명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중정스님께서서는 위례천막결사 대중이 정진하는 ‘상월선원(霜月禪院)’의 현판을 직접 써주실 만큼 이번 결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사바세계는 늘 혼탁합니다. 이런 혼탁한 세계를 정화하고, 중생들을 바른길로 안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처님 가르침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만이 혼탁한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종단에서 주요행정 소임을 맡아 종단 발전에 기여했던 스님들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더구나 어떤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천막선원을 짓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큰 발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 이 스님들의 정진은 많은 수행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고, 더 신심을 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불교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할 것입니다.”

허허벌판에 천막선원서 정진

제방선원서는 보기 드문 사례

확고한 원력이 없으면 불가능

제방선원 수행자에도 본보기

한국불교 수행풍토 개선 도움

출가대중 궁극적 목표는 깨침

이판·사판 구분 있을 수 없어

행정소임 맡았던 자승 스님도

제방선원서 정진했던 수행자

수행대중 원력 성취되길 기대

△위례천막결사 대중들은 동안거 해제 때까지 묵언하고, 하루 한 끼만 공양하면서 매일 14시간 정진을 하고 천막법당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청규를 정했습니다. 이 같은 청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중생은 세세생생 몸을 받고 받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생이 가지고 있는 습성은 태산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 습성 때문에 공부를 해도 진일보하지 못하고, 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습성에서 벗어나고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화두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움아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9명의 스님들이 엄격한 청규를 정하고 정진하겠다는 발심은 큰 용기입니다. 그런 청규를 바탕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화두에 집중하다보면 모든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고, 바른 수행이 될 것입니다.”

△위례천막결사에 참여하는 대중들은 오랜 기간 중무행정을 봐 왔던 스님들과 선원에서 정진한 구참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진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수행결사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출가대중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화두참구를 통해 부처님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거기에선 이판승이니 사판승이니 하는 구분이 없습니다. 대중생활을 위해 소임을 정한 것일 뿐 모든 출가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은 “위례천막결사 대중들의 정진은 많은 수행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불교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대중은 화두참구를 통해 건성성불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랜 기간 중무행정에 매진했던 스님들이 구참스님들과 더불어 용맹정진을 하겠다고 발심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떤 소임을 맡았던 간에 그런 구분을 다 일소하고 대중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정진하겠다는 것은 장한 일입니다. 듣기로는 행정소임을 맡았던 스님들도 대부분은 소임을 맡기 전부터 정진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내리라 믿습니다.”

△위례천막결사 대중들의 대부분은 주로 행정소임을 맡아 수행이력이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중정스님께서서는 대중스님들의 수행이력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대중스님들과 함께 수행한 인연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 신문(법보신문)에 나온 것을 전해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번 정진에 참여하는 대중들 가운데 정목 스님이라는 분은 90안거를 난 스님이고, 무연 스님과 성곡 스님은 선원에서 40안거를 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한 스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총무원장으로서 2만기를 마친 자승 스님도 행정소임을 맡기 전에 여법하게 수행을 잘해 오신 분입니다. 누군가는 자승 스님이 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동화사, 각화사, 백련사, 봉암사, 통도사, 용주사 선원에서

용맹정진을 한 분입니다. 그런 용맹정진을 했기 때문에 총무원장을 두 번이나 맡아 종단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분이 다시 고통을 무릅쓰고 참선법을 선양하기 위해 원력을 냈다는 것은 나는 그 자체로 보살행이라고 봅니다. 또 잠시 종회의원 소임을 내려놓고 용맹정진에 나서는 대중스님들도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위례천막결사 소식을 접하고 많은 사찰과 일반불자들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위례천막결

사가 한국불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작은 물이 모여 큰 물결을 이루는 것처럼 9명 스님들의 발심은 한국불교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제방에서 공부하며 애를 쓰고 있는 대중스님들에게도 상월선원 대중의 원력과 정진은 큰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일반 불자들도 환희심을 갖고 신심을 낼 것이며 정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불교의 수행풍토는 크게 바뀔 것입니다.”

△위례천막결사 대중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면?

“대중들은 정진 기간 동안 바른 신심과 바른 행, 참구를 통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장애가 사라집니다. 또한 부처님 법문을 늘 참구하면서 자신의 화두를 일념으로 의심하고 행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용맹심으로 정진해 나갈 때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부단한 정진을 해주길 바랍니다.”

정리=권오영기자 oyemc@beopbo.com

“대신심·대용맹심으로 정진의 끈 놓지 말아야”

상월선원 올해난 동안거 특별법어

가지가지의 마음이 나면 만 가지의 진리의 법이 현전(現前)하고 가지가지의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 가지의 진리의 법이 없음이라.

마음은 만 가지 진리법의 주인이다. 이 마음을 깨달아 알 것 같으면 만법(萬法)에 임의자재(任意自在) 할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할 때에는 온갖 무명업식으로 인해 번뇌가 쉴 날이 없다. 중생들은 무한한 전생의 습기

가 태산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대신심과 대용맹심으로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정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함이라. 우리가 밤을 새워가면서 용맹정진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자 지니고 있는 이 마음을 밝혀 만법의 당당한 주인이 되자는 데 있는 것이다.

상월선원에 대중들이 모여 두문불출(杜門不出)하며 동안거 결제에 임하는 것은 생로병사라는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인 생사해탈

의 대오전성(大悟轉性)하기 위함이라.

상월선원 대중들은 인연에 따라 종단의 여러 소임을 맡아 원만히 성만하고 또 다시 수행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결제에 임하고 있으니 수행자의 본분을 다한다 할 것이다.

필경에 진리의 일구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무운생령상(無雲生嶺上)하고 유월낙파심(唯月落波心)이로다. 구름이 걷히니 산마루가 드러나고 밝은 달은 물 위에 떠 있음이로다.

2019 Seoul International Buddhism Expo

서울국제 불교박람회

명상컨퍼런스

기간: 11월 15일 (금) – 11월 17일 (일)
시간: 10am – 18pm

서울무역전시장컨벤션센터 SETEC 컨벤션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1번출구

01.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술, 3가지 공인 명상 프로그램으로 만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상 프로그램을 국제 연사들의 안내에 따라 직접 배워보는 웨인데 세션

날 짜	11월 15일 (금)	11월 16일 (토)	11월 17일 (일)
주 제	Being with Dying (BWD) 죽음에 관한 명상	Mindful Self-Compassion (MSC) 마음챙김 자기연민 명상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MBSR)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구 성	국내 최초 소개되는 죽음에 관한 의료명상 훈련 프로그램. 죽음을 바라보는 근원적 지혜와 더불어 마음챙김과 연민으로 자신과 타인을 연결하고 돌보는 방법 체험 (강연+워크숍+특강)	미국 공식 인증 프로그램. 따뜻한 알아차림을 통해 자신을 돌봄으로써 일상을 보다 행복하게 만드는 명상 (강연+워크숍)	동양의 마음챙김과 서양의 의학이 접목된 의료명상 교육 프로그램.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명상 (강연+워크숍+토론)
연 사	김정숙 교수 (아시아행복연구원 원장) 앤토니 백 Anthony Back (우뎀아선센터 수석 교수진) 유재환 교수 (사단법인 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	서광스님 Ph.D (MSC한국본부장) 카렌 Karen Bluth Ph.D (MSC Certified Teacher) 효림스님 Ph.D student (MSC Certified Teacher)	안희영 교수 (한국MBSR연구소 소장) 진메이 Jin Mei Hu (대만 최초 MBSR인증지도자) 전현수 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봇다락키따 스님 (보리수선원장) 민진희 원장 (JAI요가명상 대표)
대 상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신만의 지혜를 배우고 싶은 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호스피스 기관 근무자	일상 속 괴로움, 자책, 죄책감으로 힘든 분, 일상 속에서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고 싶은 분	스트레스가 많고 자주 우울하거나 불안하신 분

02. 참가비

1일 3만원 / 3일 총 9만원
강의와 워크숍이 어우러진 1일 과정으로
부분 수강은 불가능합니다.

03. 온라인 사전 신청

홈페이지 참조
www.bexpo.kr
10월 14일부터 신청오픈
(선착순 마감)

04. 문의

전화
02-2231-2013
이메일
bexpo@daum.net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주 관 불교신문
Bulgyo News

불광미디어
Bulgwang Media

기획·운영 MIND DESIGN

후 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Association of Korean Buddhist Orders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재)명원문화재단

동국대학교의료원
Dongguk University Seil Medical Center

Hansol
한솔FNIS

협 력 동국대학교, 연동회보존위원회, (주)도반기획, BBS, BTN, 아트플랫폼주인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봉은사, 무진어소시에이츠(주),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한국명상상담심리연구원, 한국MBSR연구소, 아시아행복연구원, 한국불교미술공예협동조합, 수산당문도회, (주)컬처어스, 채식한기